

**주제: 외부적 관점에서 본 일본과 대만 - 러시아의 관점**

제 8 회 One Asia 재단 국제세미나 강좌는 중국문화대학교 일본어문학과塚本善也 부교수가 강연을 했다.塚本 교수는 일본 러시아 비교문학, 일본 대만 교류사를 전공하였다. 이번 강연의 주요 내용은 대만, 일본, 러시아 세 국가 간의 교류사적 관점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 연구하는지, 그리고 왜 일본을 연구를 하는지를 설명하였다.塚本 교수의 강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塚本 교수는 대만은 역사적인 요인으로 독자적인 일본학 연구가 시작되었고 대만 사람들은 독자적인 일본관을 가지고 있다. 대만에서 전개되는 일본학 연구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 미국, 유럽에서 전개하는 일본학 연구도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만에서 진행되는 일본학 연구도 한국, 미국, 유럽에서 진행되는 일본학 연구 성과를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해외 학문을 주시하면서 자신의 연구 방법의 오류 및 편견들을 수정하고 일본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塚本 교수는 외부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의 일본학과 일본관을 제시하며 대만과 러시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러시아 동방학(동양학)을 형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첫째, 시베리아를 개발하기 위해 현지에서 살고 있는 이민족, 원주민들의 풍속과 관습을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리적으로 러시아는 중국, 몽골, 북한, 일본 등과 가까워 국토분쟁과 국경지역을 확정 짓기 위해서 지역 아시아 국가들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사할린섬의 영토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셋째, 이슬람 민족과 큰 관련이 있다. 동양학 연구의 기초를 다진 표트르 1 세 알렉세예비치는 아주 많은 진귀한 문물을 소장하였고 쿤스트카메라(Kunstkamera) 박물관을 설립하여 세계 민족학, 인류학에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하였다.

대만과 러시아의 관계는 1980 년대 대만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에서 대만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다. 1992 년 타이베이와 모스크바에서는 경제문화협회위원회 대표부를 설립하고 양국 간에 다양한 교류와 협력 관계를 시작하였다. 러시아 학술사에서 90 년대는 대만과 러시아가 상호 연구 발전하는 시대이며 90 년대를 「대만 발견의 원년」이라고 한다.

그리고塚本 교수는 우리가 러시아의 일본학과 대만학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만학과 관련된 학자 몇 명을 소개하였다.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네프스키(Nikolai Aleksandrovich Nevsky, 1892-1937)은 대만 아리산에 추족(鄒族)을 직접 방문해 한 달 동안 추족의 전설을 수집하고 추족어를 연구하고 대만 추족 사전을 한 달만에 만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학자는 엘리제예프(Eliseev, 1889-1975)이다. 엘리제예프는 1908 부터 1914 까지 일본 도쿄에서 거주하며 도쿄대학에서 일본 고전문학과 일본미술을 연구하였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초청으로 옌칭 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많은 일본 전문가를 양성시켜 미국의 일본학 연구 분야의 선구자가 되었다. 엘리제예프는 1912 년말부터 1913 년초까지 대만에 와서 지룽(基隆)부터 가오슝(高雄)을 돌아보며 직접 대만 사회를 관찰하였다. 대만을 여행하고 쓴 원고는 2014 년에서야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엘리제예프는 원고에서 타이완 총독부가 항일 투쟁 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을 실랄하게 비판하였다. 친일파인 그가 일본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의 원고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塚本 교수는 글로바초프(Golovachev, 劉宇衛)를 소개했다. 글로바초프는 일본 전문가가 아니고 대만 전문가이다. 러시아에서 본격적으로 대만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것은 1990 년 이후이며 전통적인 문헌을 연구하기 위해 대만을 직접 방문하여 관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가 글로바초프이며, 러시아과학원 동양연구소 대만연구센터에서 중요한 대만 연구 전문가이기도 하다.

웹사이트: <https://oneasia.pccu.edu.tw/faculty.php>

번역: 사완영(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한국어문학과 부교수)